

# 드림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 즐거운 이중언어&교과학습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중언어 화자'라고 부릅니다. 학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이중언어 공부를 적극 독려해주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개발한 전자책 <즐거운 이중언어&교과학습>은 온라인으로 다문화학생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즐거운 이중언어&교과학습(<http://nile-webviewer.pubple.com/>)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http://www.parents.go.kr)

### 진로태화 3단계 : 공감해주기

자신감이 부족한 자녀들의 경우 '나는 이런 것을 잘해요' 하고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못마땅했던 좌절의 경험은 누구나 성장기에 한번쯤 겪었을 공통의 경험입니다. 학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의 불안한 마음과 고민에 공감해 주며, 자기 안의 보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 잘 맞는 일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세요. 무엇보다 학부모님의 충분한 사랑과 신뢰가 자녀의 자기사랑과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진로태화 4단계 : 장점을 찾기

다문화가정에서 '○○는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라는 질문은 새로운 상상력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요리사는 어떤 요리를 만들까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경찰관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계에서 이중언어는 어떤 강점을 발휘할까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세계의 모습에 대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봅시다.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상상하는 진취적 진로탐색은 자녀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 진로태화 1단계 : 관찰하기

우리 자녀는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 중 어떤 언어를 더 자유롭게 구사하나요? 학교 가는 아침에 우리 자녀의 얼굴은 설레고 밝은 표정인가요? 자녀는 어떤 과목 공부, 어떤 활동에 가장 자신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할 때 우리 자녀는 어떤 모습인가요? 학교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담임선생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본다면 객관적인 관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진로태화 2단계 : 질문하기

학부모님이 먼저 조언을 하기보다 자녀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자녀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자녀가 가진 재능과 특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 봅시다. '○○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신나고 즐겁니?' '지난번에 ○○가 □□에서 △△하여 칭찬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등 구체적 상황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짚어보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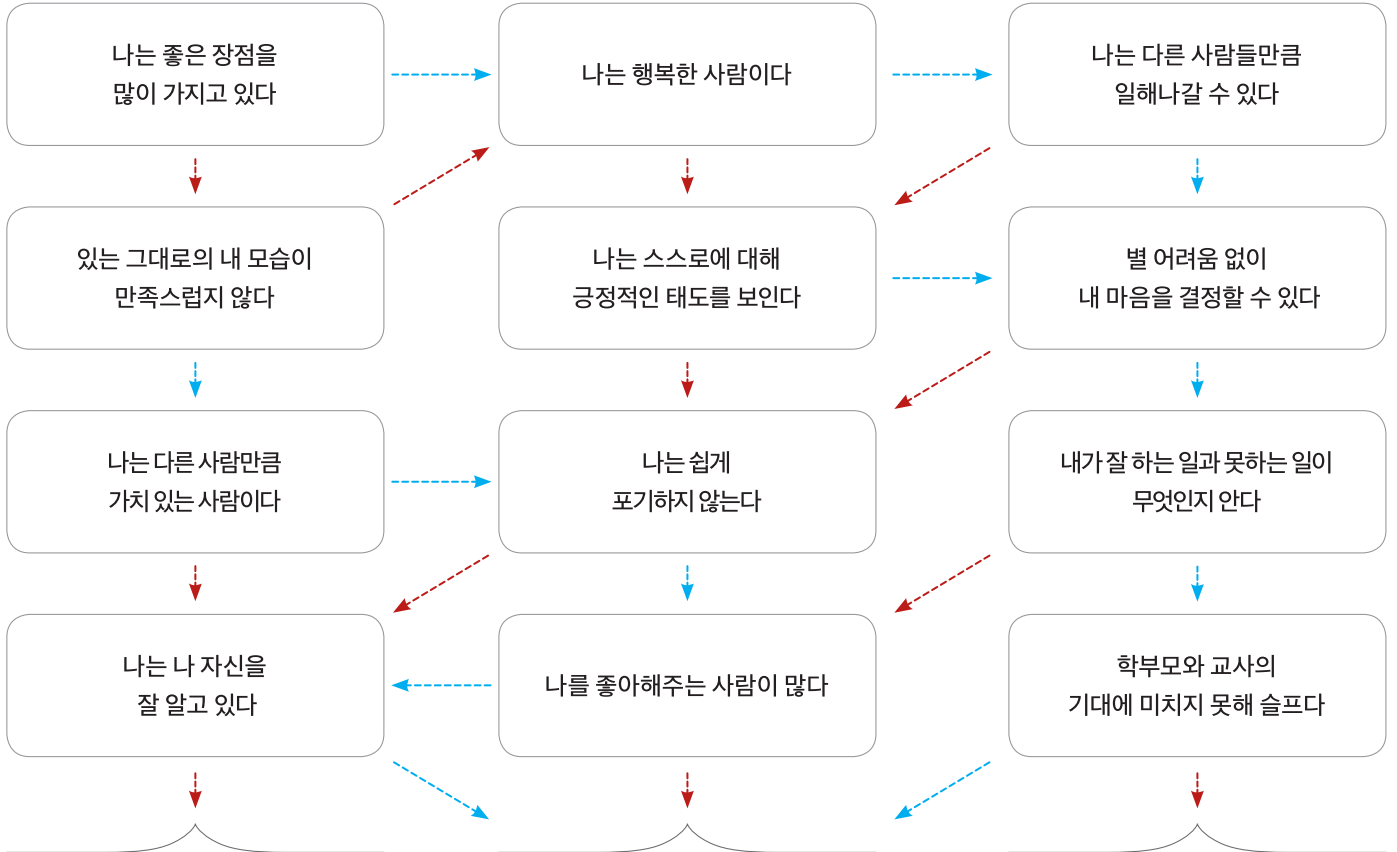
# 당당하게 자신있게 진로 첫걸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긍정적 자기이해와 자신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탐색 여정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진로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진로탐색의 출발점은 우리 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장점과 특성을 계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진로탐색 과정에서 난관을 겪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문항 하나 하나를 짚으며 자녀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출발점으로 삼아 봅시다.

→ YES ← NO



“근거 있는 자신감  
함께 만들어보아요”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 믿음직한 자산이 됩니다. 단,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자신감은 ‘자만’이 되기 쉽습니다. 자녀가 가진 장점과 능력을 키워 ‘근거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너를 사랑하고  
네의 너를 믿어요”

학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자녀들은 단단한 자기애와 자기신뢰를 갖게 됩니다. 마음을 표현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눠봅시다. 자녀와 함께 자주 진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미래를 설계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누구나 자아만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숨어있는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함께 찾아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 스스로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삶에 가장 큰 거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문항 참고 :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중 학부모 상담자료

## 우리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자녀의 진로지도가 고민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와 배움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학습과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내용: 진로지도, 학교생활 지도,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 등

절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드림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http://www.parents.go.kr)

무한한 언어의 장벽 너머  
가능성을 찾아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특히 중도입국한 외국인 자녀들은 서툰 한국어 때문에 대인관계와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언어 장벽은 자녀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므로 자녀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차이는 자녀가 드넓은 미래로 도약하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 중학생 자녀들의 언어에 대한 고민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중언어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hướng nghiệp

前途

career

профориентация

진로

## Q.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낯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는 극복 불가능한 장벽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어습득기를 한참 지난 성인들도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요. 본인의 노력과 함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중언어가 미래 직업세계에서 강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Q. 한국어 공부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로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한국어 공부를 돕고 자녀의 진로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학생 멘토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사는 동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우리 지역의 다문화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저는 꿈이 없어요!

한국어로 '진로(進路)' 중국어에서는 '前途'로 쓰이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합니다. 영어에서도 'career'는 한 사람이 거쳐가는 직업적 경로(series of jobs that a person has)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트남어의 'hướng nghiệp', 러시아어의 'профориентация'는 모두 길잡이와 안내가이드의 뜻을 함께 품고 있지요. 진로는 단순히 하나의 일자리를 얻으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자 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언어도 외모도 다르지만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진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 막막하고 불안한 그 길을 기꺼이 함께 걷고자 하는 길잡이의 마음이지요. 그 충만한 사랑과 신뢰를 자녀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꿈을 찾아가는 긴 여정에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 우리 결의 든든한 디딤돌 "다문화가정 자녀의 꿈과 미래 각종 진로지원 프로그램으로 함께 키워나가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만큼 든든한 길잡이, 진심어린 조언이 절실하지요.  
자녀들이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함께 찾아봅시다.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중국에서 온 왕○○ 군은 일주일에 세 번씩 대학생 멘토를 만납니다. 함께 영화를 보면서 어려운 한국사 공부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었고, 학교 성적이 오르면서 성취감도 얻었습니다. 오늘도 왕○○ 군은 프로그래머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은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학습·상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녀의 학교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자녀의 대학생 멘토를 만나보세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제10회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수기집

##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외국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신○○ 군은 친구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친구도 사귀며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돕는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재단입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기관을 두고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 초기 적응과 한국어 공부, 진로상담과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출처: EBS <꿈을 잡아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집, 무지개청소년센터



## 서울시·현대차정몽구재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다문화가정 자녀인 ○○이는 2016년에 처음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던 ○○이는 이곳에서 공부하며 자신감을 얻어 한국체류 비자 시험과 검정고시까지 모두 합격했습니다. ○○는 심리학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자신도 선생님처럼 이웃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2015년 9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22개국, 705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진로 상담 등 학생 맞춤형 적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처: 2019.2.12. 신동아 명사에세이,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 우리 동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보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자녀교육과 진로·진학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우리 동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봅시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http://www.liveinkorea.kr))



# 드림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http://www.parents.go.kr)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회의 미래 사람들

2019년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명 가운데 4명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학계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0년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문턱에서 있는 셈입니다. 세계화 시대, 다문화 국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잠재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발현될 것입니다. 자녀가 가진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여기에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포용력이 더해지면 새로운 직업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2019년 법무부가 ‘모범귀화자’로 선정한 다문화 시민들의 사례를 보며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직업 세계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을 알리는 자연환경해설사

대만에서 온 왕○ 씨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외국어 실력도 출중합니다.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하면서 왕○ 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도 열정을 다합니다. 다문화가정 상담을 하며 아동들의 마음을 달래는가 하면, 지역사회에서 무료 중국어 강의를 합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이민자들이 겪을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하는 그는 국적의 경계뿐 아니라 마음의 경계도 허무는 ‘민간 외교관’입니다.

## 중국과 한국을 잇는 디딤돌 - 지방자치단체 공식통역관

중국 길림성에서 온 김○○ 주무관은 광주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각종 중요한 도시교류와 업무협약을 담당합니다. 2019년 중국수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왔고, 2015년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하며 국제협력 분야에서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 주무관은 한국과 중국이 상생의 미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당당하게 밝히며 오늘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도와요 - 이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

부천시주민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도○○ 상담팀장은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다문화가정 상담부터 법률·의료 상담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매월 100건 가까이 상담을 맡고 있다고 해요. 정신없는 바쁜 일상이지만 지금도 틈틈이 경찰서와 법원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을 도와주고 삶의 보람을 찾고 싶어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도○○ 팀장은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출처: 2019년 ‘법무부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보도자료



# “언어의 차이 허물고 마음의 거리 이어줍니다”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돕는 직업인들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은 청소년 소설 <완득이>의 주인공은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맞닥뜨리는 낯선 말, 낯선 환경이지요. 2018년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2019년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날수록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과 서비스도 더욱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돕는 직업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돕는 직업들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어떤 일을 하나요?

입국 초기의 결혼 이민자가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어와 한국어로 치르는 통번역 전문성 평가 시험에 합격하면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통번역 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사회전문가

어떤 일을 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이민자 대상으로 사회통합 지원 정책 강사 활동을 하며 이민자의 한국국적취득과 조기적응을 돕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무부가 인정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와 실무 등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 다문화 코디네이터

어떤 일을 하나요?

다문화가정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 하고 지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다문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며 교사자격증이 있을 경우 유리합니다.

### 다문화언어지도사

어떤 일을 하나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언어발달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전문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수업을 이수한 다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시험을 통해 언어발달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출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go.kr), 법무부(moj.go.kr)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정보를 찾아봅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지정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교육 정보 제공,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http://www.nime.or.kr>)

